

산꽃세상으로 가는 생명의 고향, 금산

안 용 산 (시인, 금산문화원 사무국장)

세계가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꿈꾸던 세상은 어디에도 있지 않았고 앞으로도 있지 않을 것 같은 속도로 변하고 있다. 우리가 꿈꾸던 세상은 유·무형의 문화 또는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남아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그 흔적을 통하여 나름의 동일성과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전통으로 이어가고 자긍심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 전통이 언제부터인가 자랑이 아니라 버려야 할 전근대적인 유산으로 취급을 받더니 이제 새로운 눈으로 생각

을 하게 되는 시대가 되었다. 사실, 전근대적이라는 개념이 이 땅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우리의 시각이 아닌 서구의 눈으로 바라본 그들의 시각이었다. 그들의 시각으로 살다 보니 또 그들의 시각으로, 세계화라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 역설적으로 우리의 것을 찾게 되었다. 그렇게 세계는 변하고 있다. 그 변하고 있는 눈으로 금산을 바라보면 금산은 어떤 곳이며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살고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산야문화로 꿈꾸던 생명의 고장

금산이 자리하고 있는 지리를 살펴보면 크게는 백두대간을 이루는 속리산, 덕유산에서 발원하는 산맥과 덕유산을 지나 장안산, 영취산에서 발원하여 금남호남정맥인 성수산, 마이산을 거쳐 금남정맥이라 부르는 운장산을 지나 금산의 함박산, 인대산, 대둔산으로 이어지는 산맥에 싸여 있고 두 산맥 사이를 금강이 흐르고 있다. 작게는 동으로 천태산, 서로는 소금강이라는 대둔산, 남으로는 진악산, 북으로는 충남의 최고봉인 서대산에 싸여 커다란 분지를 이루고 이러한 산들은 크게 봉황천과 유등천이 과거 금산군과 진산군의 경계를 이루고 두 개의 분지를 이루는가 하면 이 두 개의 분지를 금강이 하나로 아우르고 있다. 이 두 개의 분지에는 3000개의 산들이 700여 소분지를 이루고 136개의 소하천의 발원지로서 474개의 마을이 환경의 독자성을 이루며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여럿이면서 하나인 마을문화를 낳았다. 금산의 마을 문화는 전통문화라 부르는 기층민들의 전승문화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산촌문화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돌탑신앙, 들녘의 전형인 농두레가 아닌 송계문화, 원박의 단순하지만 돌무를 돌리면서 그 여백을 채우는 풍물굿, 서럽고 유장한 힘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일노래 등에 금산의 생활문화가 오롯이 살아있어 민속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층민들의 생활문화를 한 마디로 규정하자면 산야문화라고 할 수 있다. 산야소리의 "산"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산의 뜻을 넘어서고 있다.

그 어원을 보면 "산"은 "살"이고 살이 "살"이 되고 다시 "산"이 된다. 이 "살"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 "살다, 살리다, 살림, 삶, 사타구니, 소리" 등 생명과 관련된 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산야소리는 씨나락이 모가 되고 모가 다시 나락이 되는 재생의 살림문화이고 생명문화의 원형



이라 할 수 있다. 생존과 생활 그리고 생명이 함께하는 풍류문화인 것이다.

풍류로 맺고 풀던 생명의 문화

금산풍물굿에는 나비가 바람을 타고 오르는 신명이 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일으키는 신바람이 분다. 나비상으로 내어 놀다보면 어느새 양사로 달아오르고 그렇게 놀다보면 서로 하나가 되어 외사로 맺고 연풍대로 풀어지는 신명의 극치에 이르게 된다. 신명은 우주의 생명을 받아들여 사람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바꾸는 힘이 되게 한다. 금산풍물굿은 바로 이 집단적인 신명을 바탕으로 하여 생명의 판을 새롭게 짜게 한다. 개인의 기량보다는 집단의 신명이 우선하고 화려하기보다는 담백한 맛이 담겨있는 풍물굿이기에 다른 지역의 풍물굿보다 내고 달아 맺고 푸는 생명의 순환고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외마치질굿, 호호굿, 영산굿은 금산풍물굿의 백미이며 국내외 공연을 통하여 금산의 전통문화에



물폐기농요

술의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다.

산야소리는 높은 산과 낮은 물이 만나 사람들은 적시는 들판에 자리하고 있다. 들판에 자라는 어린 모가 이 산야소리를 들으면서 벼가 되고 쌀이 된다. 그렇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산을 부르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냥 심심해서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를 하지 않으면 살지 못해 부르는 생명의 소리였다. 자연의 질서처럼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소리로 산을 넘고 들판

을 적시던 생명의 노래가 산야소리이다. 이 산야소리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물폐기농요에도 남아 전승되고 있다.

정월 초하루나 열나흘이면 금산에는 못별이 뜬다. 별은 생명이다. 아니 생명은 별이다. 별 중에서도 북극성이다. 북극성이 반짝이는 그곳이 우리 민족의 고향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한해가 시작되는 정월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어김없이 소지를 올리고 그 소지불은 하늘로 올라 별이 된다. 세상 모두 살리자는 별이 되고야 만다. 금산은 돌탑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마을 어귀 잡귀가 들어오는 길목에 사람들은 돌을 쌓고 생명의 땀줄처럼 열두발 새끼를 칭칭 감아 옷을 입힌다.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는 이 돌탑은 동아시아 남북으로 이어지는 마을공동체 신앙으로 북으로 바이칼 호수에서 발원 뫼고를 거쳐 백두대간을 따라오다 제주도를 지나 일본까지 분포하는 인류 문화유산 중의 하나이다. 금산은 이러한 돌탑이 마을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돌탑의 중심이다.

금산은 어디를 보아도 크고 작은 산들이 넘실댄다. 그래서 금산이라 하고 아름답다고 한다. 아름다움은 바로 살아있음이고 살림이고 사름이다. 이 모든 것은 생명에서 나오기 마련이다. 생명은 머무르지 않고 흐른다. 그물처럼 맺어 있어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여럿이면서 하나인 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평야지대가 한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두레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금산은 조그마한 분지를 이루고 있는 산을 중심으로 하여 마을을 이루고 그 마을들이 모여 송계가 짜여지고 각 마을이 만나는 날이면 난장이 열리게 된다. 각 마을이 독자적이면서 송계라는 생산의례를 통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상생하는 문화를 일찍이 경험하고 실천하였다.

이렇게 금산은 일상생활 자체가 오늘날 화두로 삼고 있는 역동적인 상생의 문화였으며 오늘날 금산이 인삼약초



태고사

의 고장이 된 것은 우연히 아니라 생래적으로 형성된 산야 소리 문화를 엿볼 수 있으리라 본다. 일상의 고난과 슬픔을 신바람으로 풀었던 산야문화는 바로 신명의 문화이며 풍류 그 자체이다.

의로운 사람들이 사는 미래의 땅

금산에도 선사시대의 유적으로 고인돌이 천내리, 용화리, 성곡리, 만악리, 초현리 등 여러 곳에 산재하고 있어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지금과는

달리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했던 삼국 또는 고려시대의 사찰이 곳곳에 있는데, 신라시대 무염선사가 창건하였다는 신안사가 천태산 국사봉과 영신봉 사이에 위치해 마치 연꽃이 만개한 형국의 연화도랑으로 알려져 있다. 신라 조고대사가 창건하였다는 보석사는 진악산을 배경으로 하여 자리하였는데 경내에는 임진왜란때 왜군과 싸우다 순국한 의병장 영규대사가 기거한 곳으로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의선각과 의병승장비가 있으며 천년을 자랑하는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석사를 굽어보고 있다. 또한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하였다는 태고사가 대둔산



칠백의총

에 있는데 만해 한용운 선생이 태고사를 보지 않고는 천하의 명승지를 말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빼어나며, 한때 서산대사의 법손 진묵대사가 수도하는 등 금강산 마하연사와 동렬의 명찰로 고승대덕을 배출하였다. 그리고 우암 선생이 태고사에서 수학을 할 때 새겼다는 석문이 전해지고 있다.

금산은 예학의 고장으로 특히 기호학파의 뜻을 기리는 서원이 세워져 이 지방의 교육을 담당하던 금산향교와 진산향교와 더불어 정신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당시 서원의 현황을 보면 임진왜란때 장렬히 순국한 조헌 선생과 영규대사, 고경명 선생 등 700여 의혼을 모시는 종용사와 칠백의총, 금산 최초의 서원으로 이 고장의 명유현과 충신영사를 모신 성곡서원이 있어 낙천재 김신, 율정 윤택, 야은 길재, 충암 김정, 계봉 고경명, 중봉 조헌 등 6인을 배향하였다. 미촌 윤선거, 초려 이유태 선생이 개설한 초려서원, 명재 윤중, 시남 유계 선생이 개설한 산천재 서원, 우암 송시열, 동춘 송준길, 미호 김원행, 시남 유계, 낙천 송명흠 선생 등 6인을 배향한 용강서원, 미수 허목 선

생을 배향한 석포재서원, 완월당 오응전, 오옥, 오직, 오방언 등 사충신을 배향한 금곡서원 등이 있어 가히 유향으로 손색이 없는 활동을 하였다.

이 중에서 모든 사원이 훼손되었으나 유일하게 전해오는 서원으로 용강서원이 있는데 조선시대 후기와 근대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서원이다. 미호 김원행 선생이 이곳으로 사화와 관련되어 유배를 와 외종사촌인 낙천 송명흠 선생 등과 교유하면서 강론을 통하여 금산지방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미호 김원행과 낙천 송명흠은 조선 후기 이기동이론 논쟁으로 기학을 정립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낙문 임성주 선생과 이종사촌으로 당시 철학적 사유를 펼치던 학자로 유명하다. 특히 김원행은 할아버지 김창협에서 이재 선생으로 이어진 학맥은 이어받아 홍대용이라는 기호학파의 또다른 기학자로 평가를 받는 홍대용 선생으로 이어져 근대화를 여는 역할을 하게 하였던 학자이다.

근세 일제 강점기에는 김용중, 송철 선생이 독립운동을 위해 국내외에서 활동을 하였으며 이들의 뒤를 이어 유진산, 임영신, 이현상 등이 좌우익을 대표하여 활동을 하였다. 이처럼 금산은 고려말, 임진란 이후 영정조 시대, 해방공간이라 부르는 시기 등 한 시대가 가고 오는 전환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인물이 활동을 하였다. 이들이 꿈꾸었던 세계는 바로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이어져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으로 남아 있다.

산꽃나라로 가는 축제의 땅

금산은 원경, 중경, 근경이 적당히 자리하여 서로를 위협하지 않은 조화를 이루고 있어 '아름답다'라고 한다. 이를 두고 조경학자들은 시각프레임의 황금분할의 구도라고 하고 이 사이에 인삼밭, 과수원 등의 오브제가 있어 하나

錦山



의 설치미술이라고 서양 건축가들이 감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1000개의 자연공원을 가꾸고 있다. 자연공원은 가꾸기는 가꾸되 저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사람이 적당히 도와주는 공원이다. 시인 고은 선생은 이루 두고 비보적 자연관의 실천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두고 문화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왜 그랬을까.

21세기가 되면서 앞을 다투어 상생이라는 말을 화두로 삼아 지속적인 삶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다. 서양에서 지난 400여간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만감과 사람만이 주체가 되는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전지구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에서 온 반성으로 상생이라는 말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자연공원은 꽃과 나비로 상징되는 두 개의 축이 사랑이라는 하나의 날갯짓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세상 그 중심에 있다. 지금까지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극도의 이기심과 경쟁으로 결국 세계에서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이원적인 흑백논리로 삶을 황폐화시켰다. 이제는 꽃이 나비를 필요로 하고 나비가 꽃이 필요한 상생의 시대, 서로 상대방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관계가 사랑이라는 바람으로 드러나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의 생존을 위하여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여럿이면서 하나인 화합의 세계처럼 꽃과 나비의 관계로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획일화가 아니고 그렇다고 각자 따로 있어 혼란스럽지 않은 관계가 바로 저 스스로 되는 자연이고 생명이라.

금산은 1000개의 자연공원을 통하여 사람과 문화가 살아날 것이며 그 중심에는 생명이 자리하고 있어 못 생명들의 배려와 나눔의 미학인 사랑을 실천하는 생명의 고향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1000개의 자연공원에 사람들이 만나 예전에 화랑들이 산천을 찾아 풍류를 즐기었듯이 놀이마



인삼짜기

당을 열고 4계절마다 만나 축제마당을 열고 있다. 한 해의 시작인 겨울에는 장동달맞이축제가 금산을 양지리에서 개최되어 한 해의 평안을 기원하고, 봄에는 군북면 보곡산골 300만평 산꽃동산에서 비단골산꽃축제가 열리고, 여름에는 부리면 평촌리에서 금강민속축제가 열려 생태체험을 통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피서를 하고, 가을에는 금산을 일원에서 건강과 웃음 그리고 희망이라는 주제로 금산인삼축제가 열리고 있어 우리 민족이 꿈꾸던 신시를 열고 있다. 신시는 정신과 물질, 문화와 경제, 세계와 지역, 건강과 웃음이 양 날개로 날갯짓을 하는 풍류이며 사랑 그 자체이다. 그런가하면 금산의 자연을 닮은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여럿이면서 하나인 복합공간인 금산다락원에서는 매일 사람들이 만나 생명의 호흡을 같이하고 있다.

1000개의 자연공원과 금산다락원은 금산이 산꽃나라, 산꽃세상으로 가는 양 날개이다. 사람들이 만나 호흡을 같이 하고 날갯짓을 하는 날 21세기의 화두인 상생의 시대는 열리리라 믿는다.



다락원